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9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3)성불·모지오름  
우리네 모습 닮은 오름의 신비

입력 : 2004. 03.26. 00:00:00



절물오름과 건월악을 탐사할 예정이지만 절물오름 주차장에 도착하니 폭우가 쏟아진다. 중산간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2월21일, 탐사를 진행시키려면 무엇보다 판단력이 중요한 날이었다. 산행경험이 풍부한 오문필 탐사위원의 제안에 따라 탐사단은 구좌읍 성불오름을 선택했다. 오 위원들의 판단은 적중했다.

성불오름 기슭의 제주펄펄공장에 도착하니, 폭우는 그치고 안개비가 자욱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온통 회색이지만 어느새 봄기운으로 가득한 오름의 향기는 탐사단을 설레게 했다. 점점 날씨는 개고, 탐사는 성읍리 모지오름, 가시리 크립토돔까지 이어졌다.

## △성불오름

대천동 사거리를 지나 성읍쪽을 향할 때 오른쪽 가까이에 보이는, 수도승의 모습을 한 오름이다. 안개에 쌓인 오름을 바라보며 목장을 건너니 오름기슭에 금방 도착했다. 오름 아랫쪽에는 삼나무와 측백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정상부에는 자연림이, 정상을 잇는 능선에는 노란 띠밭이 펼쳐져 있었다. 동사면 꼭대기에 바위가 박혀있고 그것이 마치 스님이 염불하는 모양이라 하여 성불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과거에 이 오름에 있었던 성불암에서 연유했다는 설도 있다.

탐사단은 남동·북 두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계곡을 먼저 탐사했다. 말굽형 분화구의 내사면 자락에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용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이 메워지긴 했지만 그대로 흔치 않은 오름속의 샘이어서 신비감을 자아낸다. 과거에는 성읍 주민들도 5~6km나 되는 이곳까지 와서 물길러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봐서는 당시 주민들에게 소중한 샘터였음이 틀림없다. 이 웅달샘은 성불천으로 불리고 있다.

샘은 쉼터역할을 한다. 그래서인지 탐사에 동행한 동국대 지리교육과 이해은 교수와 탐사위원들과의 대화가 한참동안 이어졌다. 제주의 오름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옛 샘터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동북쪽 정상에 올랐다. 기암괴석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 △모지오름

표선면 중산간에는 가족을 상징하는 오름군이 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큰아들을 의미하는 오름들이 모두 한 데 모여 있다. 따라비, 모지, 장자, 새끼오름을 일컫는 말이다. 탐사단은 가장 먼저 모지오름을 찾았다.

성읍민속마을에서 가시리 방면 중산간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km위치에서 다시 농로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의 가슴처럼 평퍼짐한 오름을 만난다. 모지오름이다. 서쪽에는 따라비 오름이 딱 버티어 있고 남동쪽엔 대규모 왕릉과 같은 오름이 있으니 바로 장자오름이다. 장자 오름은 모지오름의 큰 아들 격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따라비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형 국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따라비는 주위에 모지(母地)오름, 장자(長子)오름, 새끼오름이 있는 데서 가장(家長)격의 오름이라고 불린다. 이 오름이 오름의 할아버지라 할 때 그 손자는 구 좌읍 종달리에 손지오름이 있다.

모지오름은 삼나무와 편백조림지를 거슬러 정상까지는 10분이면 족하다. 오름은 정상에 오르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굽부리가 터진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면 영주산이 지척이고 그 너머와 주변에 제주 동부지역의 오름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굽부리안에는 또 하나의 오름이 존재한다. 알오름이다. 모지오름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형체라 하여 유래됐다는 이야기는 알오름에서도 공감할 수 있다. 탐사팀은 굽부리로 내려가 알오름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이곳의 식물상도 조사했다.

## /특별취재팀

[사진설명]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의 모지오름. 어머니의 품속같은 모지오름 분화구가 알오름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 [전문가리포트]모지오름과 화산성암설사태층

모지오름은 분화구의 한쪽 방향이 트여진 형태를 나타내는데, 모지오름 중심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나가면서 화산체의 한쪽 사면을 붕괴시켜서 형성된 모양이다. 모지오름의 굽부리(분화구)가 트여진 방향(북동)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지오름의 용암분출과 함께 원래 원추형의 오름산체를 구성하였던 송이(스코리아)들이 붕괴되고 용암의 흐름에 실려 넓은 지역으로 분산된 화산성암설사태층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모지오름의 트여진 분화구 전면에 분포하는 화산성암설사태층은 길이 약 1.8km, 폭 약 2.7km의 규모로 분포하며, 말단부는 천미천을 사이에 두고 영주산과 경계하고 있다. 오름과 화산성암설사태층이 만든 언덕 지형은 모두 동일한 구성물질(송이)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분화구의 유무, 산체의 크기, 균집적인 분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산성암설사태층의 하부에는 사태층을 운반하였던 용암이 분포하는데, 대부분 지표상에 노출이 불량한 경우가 많다. 모지오름의 경우에는 천미천의 하천 절벽과 그림에서 모지오름의 중심부(분화구)에 밝은 색으로 나타난 부분에 용암이 노출되어 있다. 이 모지오름 용암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생성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8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화산성암설사태층 및 이들이 분포하는 지형의 윤곽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8만년 전에 용암을 분출하였던 모지오름 화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전문가리포트]산정엔 해탈한 반야의 지혜가

인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생이 무의미하듯 변화와 움직임은 태극의 이치에서 온다. 산형이 살아 기복을 이루면 기운이 모여 지기(地氣)를 형성한다. 성불오름은 용호 즉, 좌우의 산줄기가 맞닿는 곳에서 축축한 봄물이 배어 나오듯 빼어난 수기(水氣)를 자랑하는 곳이다. 청룡이 오른 쪽으로 감싸돌아 북동향으로 개구되어 그 사이로 깊고 은밀한 골짜기 숲을 이루니 여체로 비교하면 옥문형(玉門形)이 된다. 그 위쪽 일대는 묘지군을 이루어 망자들의 안식처를 삼고 있다. 성불오름의 특징은 동쪽 산정에 귀성(貴星)이 보이는데 서기(瑞氣)를 띄고 용기한 암석이 마치 선정에 든 수행인이 생사의 고뇌를 뛰어넘어 해탈한 반야의 지혜를 얻어 성불하는 듯 유장한 세월을 맞으며 영원을 향하고 있다.

물형으로 바라보면 성불암 아래는 여인이 하늘의 성신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인 옥녀배두형(玉女拜斗形)으로서 빼어난 문기(文氣)가 발복의 기운을 타고 시원하게 동쪽을 타고 내려간다. 이 오름은 오성(五星)으로 금형(金形)과 토형(土形)이 배합된 형태로서 골짜기의 위쪽에 검혈(鉗穴)이 형성되어 청룡작국을 하여 동북쪽인 우측으로 물이 돌아나간다. 역사성과 문화성이 깊게 배어있는 곳으로서 성불오름의 지명이 의미하는 만큼 원형의 보존과 옛 기록을 토대로 한 문화적 소재를 복원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지오름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이를 포근하게 감싸 안은 형상으로 남서쪽에서는 평평한 토형(土形)으로 다가오고 남쪽의 정상부에서 보면 백호가 짧고 청룡이 길게 환포하여 청룡작을 형성한다. 지형으로는 청룡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인 청룡농주격(靑龍弄珠格)으로 볼 수 있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풍수분야)>

[알림]3월 27일(토요일)은 구두리·젯망·붉은오름 등을 탐사합니다. 탐사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본사 휴게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